

아침 경건회를 건너뛴까 싶었다. 갑자기 잠이 깼다. 경건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. 목사님은 창세기 4장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세미나에 적합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듣고 보니 큰 감동이 되었다. "야발 슈발은 모두 가신의 후손이다. 비록 살인자의 후손들이지만 야발은 제사에 쓰이는 소를 키우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슈발은 제사음식을 담당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."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생각에 큰 은혜를 받았다.

아홉 명의 강사가 맹활약 한 지휘법 분반실습은 참가자들의 단계를 세심하게 구분하여 적응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. 그리고 지휘자들의 일생의 숙제인 선곡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세 번의 리딩과 시범연주 세션은 나른한 오후의 청량음료와 같았다. 여덟 개의 선택수업 또한 잘 준비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.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폐막연주 분반수업은 전문합창지도법의 현장체험이었다. 이기선 이사장이 직접 강의한 메시아 정격연주법은 지휘자들에게 전문적인 연주 가이드가 될 것이다.



Vision.



뜨겁다.
살이 익을 정도로 뜨겁다.
햇빛이, 아스팔트의 복사열이 숨을 쉴 수 없게 한다.
에어콘 바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...

그런데 더 뜨겁다.
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.
또다른 뜨거움으로 교회 건물 전체를 녹이려 한다.
어딘가에 불이 난게 분명하다.

어제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더니
어제는 열시간을 꼬박 앉아 그 수천의 찬양의 열기를 받아 먹더니
오늘은 말씀을 먹고 가르침을 먹으려
어제 먹은 열기를 다 사르고 더 사르는구나..

수단을 배우러 왔는가?
문화를 배우러 왔는가?
선선함 속에 숨으려 왔는가?
너 불을 먹는 이여
성령의 불을 먹고 있구나.
성령의 사람들이여.